

#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

## Attachment and the Self-Concept in Early Childhood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정의영\*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최보가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Univ.

Graduate student : Jung, Eui-Young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Univ.

Professor : Choi, Bo-Ga

---

### <Abstract>

The Pattern of Young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Concept in Young Children. This work sheds light on the patterns of children's attachment to their mother and the self-concept of young children. Ninety-two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kindergarten and nurseries in the city of Taegu. All the children were from 3 to 5 years old. The measurement instruments were the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created by Cassidy, and the self-concept test, designed and used by Bently and Yeatts.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frequencies, percentages, independent-samples t-test, one-way ANOVA, and the Scheffe test.

The study'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rea of young child-mother attachments, the most common pattern was a secure attachment. The percentage of insecure-avoidant attachment was similar to that of the insecure-ambivalent attachment. Second, in terms of gend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concept among young children. Third, the self-concept held by young children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age. The younger the age, the more positive was the self-concept. Finally, the self-concept of children varied greatly according to the pattern of child-mother attachment. Those children who were more securely attached to their mothers evidenced a more positive self-concept than those children who were insecurely attached to their mother.

---

▲ 주요어(Key words) : 애착(attachment), 자아개념(self-concept),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

## 1. 서론

생의 초기에 양육자와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애착은 유아의 인지·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고경애, 1984; 김영지, 1994; 김중순, 1989; 손혜숙, 1998; 송지연, 1989),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지금까지 애착에 관한 연구들(김승경, 1998; 나유미, 1997; 박응임, 1995; 박지희, 1996; Ainsworth, 1979; Beckwith, 1972; Bowlby, 1969; LaFreniere & Sroufe, 1985; Londerville & Main, 1981)은 주로 영아에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이유는 초기에 형성하는 애착의 질이 발달 전반에 미치는 중요성뿐만 아니라 애착이 지속적이라는 견해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 사회에서 고용 시장의 확대, 가정의 양육

---

\* 주저자 : 정의영(E-mail : petite20@hanmail.net)

부담 감소, 가사 노동의 경감 및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요구 증가 등으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는 취학시기까지 가정에서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유아들이 훨씬 더 어린 나이에 보육시설에 다니게 되어 유아기 양육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으므로 유아기 애착을 영아기 애착과 구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애착관련 연구들이 영아기에 집중된 또 다른 이유는 애착연구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Ainsworth(1983)의 낮선상황절차나 Waters와 Deane(1985)의 애착 Q-set 등이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구들이 언어 및 인지능력이 보다 발달된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면서, 최근에는 표상에 근거한 애착 측정도구가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Main과 Cassidy(1988)는 6세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ASCT :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를 사용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따라서 영아기의 애착이 무조건 유아기까지 안정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유아기의 애착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에 근거하여 유아의 애착을 직접 측정하여 애착과 발달과의 관계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애착 이론은 어머니-유아간의 애착의 질이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Bowlby(1973)는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자아, 애착대상, 환경 및 이러한 요소들간의 관계에 대한 내적인 정신적 표상으로 보고, 유아는 애착대상인 어머니를 내적 실행 모델로 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표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Bowlby(1973, 1980)는 애착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이 유아가 세상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세상에서 기대되는 행동을 발달시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유아가 자아에 대해 형성하는 내적 표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자신에 대한 학습 수단이 적은 유아의 경우는 애착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유효순, 1996).

내적 실행 모델의 질은 유아가 보내는 신호에 부모가 얼마나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했는가, 유아가 보호와 관심을 필요로 할 때 부모의 위로가 쉽게 주어졌는가, 유아를 애정적으로 수용하고 유아가 주위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는가에 의해 결정된다(Bowlby, 1980). 즉 부모가 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고, 애정적으로 수용해 주며, 유아가 필요로 하는 관심과 보호를 제공해 주면, 유아는 다른 사람에 대해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내적 실행 모델을 발달시키며, 자신이 유능하며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만한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반대로 부모로부터 일관성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대우를 받거나 거부와 냉대를 당하게 되면 유아는 다른 사람에 대해 거부적인 내적 실행 모델을 발달시키며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87).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지각으로(Purkey, 1970), 이러한 자아개념은 유아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일생동안 개인의 외현적 행동과 내면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기는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켜 나가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유아는 자신의 특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확고한 개념을 형성한다. 유아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점차 축하게 되는 의미 있는 타인, 주로 부모나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며, 특히 부모에게 사랑 받고 수용되는 경험은 유아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한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나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사회적 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덜 겪고 창의적인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감의 결여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며, 매사에 소심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므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은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oopersmith, 1981). 특히 유아기에 형성된 긍정적 자아개념은 또래와의 적응 및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확립은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며, 유아발달 연구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기에 형성된 자아개념은 유아의 성취적 행동에는 물론 정서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김효정, 1991; 김현숙, 1993; 김향희, 1996; 조운정, 1997; 민영한, 1998)를 통해 밝혀졌고, Selman(1980, 1981)은 유아의 자아개념이 관찰 가능한 외적 행동으로부터 내재적인 심리적 특성을 추론하는 인지과정을 통해 발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아기의 자아개념 발달이 유아의 사고능력 및 인지구조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밝혔다. Selman(1981)이 구분한 자아인지 발달단계에 따르면, 영아기에는 물리적 존재는 이해하지만 심리적 상태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아기로 접어들면서, 유아는 내재적인 심리적 특성과 물리적 행동의 존재를 구분하고,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유아기 초기에는 자신의 신체적 특징이나 외적 속성에 의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아기 후기에는 자신의 정신적·내적인 측면을 볼 수 있게 되고,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정서에 대해서도 지각하게 되어 정서적 자아개념도 형성하게 된다(Selman, 1980, 1981; 송명자, 1999, 재인용). 이렇듯 자아개념은 일생동안 인간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의 발달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시되고 있다(Purkey, 1970).

유아가 형성하는 자아개념은 인지적·정서적·사회적·신체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인지적 자아개념은 유아가 학습하는 활동 및 성취에 대해 갖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서적 자아개념은 이상성, 도덕성, 자신의 기분에 관한 지각을 나타낸다. 사회적 자아개념은 부모, 교사, 또래집단에 대한

지각으로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정도 및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체적 자아개념은 유아가 신체에 대해 갖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건강상태, 신체적 외모,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지각을 가리키는 것이다(박주혜, 1997).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남·여의 성역할을 비교적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유아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성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사회로부터 강요받게 되고, 대체로 모든 발달영역에서 남아가 더 많이 성취하도록 기대되기 때문에, 유아의 자아개념 발달특성은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대부분의 연구들(주리분, 1982; Burns & Zweig, 1980; Elrod & Crase, 1980; Hall & Halberstadt, 1980)이 남아의 자아개념이 여아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여아가 남아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다는 연구(정숙자, 1984)와 유아의 자아개념 발달에 있어서 성차가 없다는 연구(김재봉, 1986; 김중희, 1980; 김효정, 1991; 홍준표, 1974; Burge, 1982; Piers & Harris, 1964) 등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므로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여러 연구들(김재봉, 1986; 김호권, 1979; 김희화·김경연, 1993; 이은혜·최혜영·김미혜, 1990; 주리분, 1982; 최혜영, 1990)은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아의 인지발달과 사회화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발달수준과 사회화 경험이 증가되고, 부모, 또래 등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는다는 연구(심성경, 1996)와 연령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김효정, 1991; 정숙자, 1984)도 있으므로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애착과 자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이주리, 1996; Cassidy, 1988)들은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어 아동기와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자신에 대해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Sroufe, 1983),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이 유능하고 효율적인 존재라는 개념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Ainsworth, 1989; Sroufe, 1979; Waters, Wippmar, & Sroufe, 1979; Epstein, 1982; 손혜숙, 1998, 재인용).

현재까지 행해진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영아를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김지연, 1995; 박은경, 1993; 이은경, 1993; 조영순, 1999)으로 애착에 관한 표상의 안정성과 자아에 관한 표상의 긍정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는 영아기에 측정된 애착과 유아기의 자아지각과의 관계를 밝힌 중단적 연구(박상미·이영, 2000)가 있다. 또한 이주리(1996), Cassidy(1988) 등의 연구

에서는 유아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했으나, 유효순(1996)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아지각이 애착 안정성과 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Cassidy, 1988)를 사용하여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을 직접 측정하여 유아의 애착유형을 밝히고, 유아의 자아개념을 보다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림도구(Bentley & Yeatts, 1974)를 사용하여 유아의 총 자아개념과 자아개념 하위요인-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자아개념을 측정하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에 따라 유아의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유아기 이전에 형성된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아동기와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어머니와의 애착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밝혀줄 것이다.

이에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연령에 따라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성별·연령에 따라 유아의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에 따라 유아의 자아개념은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시내에 소재한 1개 어린이집과 1개 유치원의 3·4·5세 유아 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의 유아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떠나 교사 및 또래와 새롭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이 시기는 유아의 애착 및 자아개념 형성과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연령과 연령범위 및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닌 기간은 <표 1>과 같으며,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연령, 연령범위 및 취원기간

연령	성별 (명)	연령 범위 (개월)	평균 연령 (개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닌 기간
3세	남 15	34~38	35.6	평균 8개월(6~14개월)
	여 15	33~37	35.7	평균 7.6개월(6~10개월)
4세	남 16	47~50	48.6	평균 14.7개월(6~26개월)
	여 16	46~51	48.4	평균 15.3개월(6~20개월)
5세	남 15	56~63	59.9	평균 20.9개월(6~31개월)
	여 15	58~63	60.2	평균 20.1개월(6~30개월)

&lt;표 2&gt;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46(50.0)
	여	46(50.0)
연령	3세	30(32.6)
	4세	32(34.8)
	5세	30(32.6)
형제 유·무	의동이	28(30.4)
	형제유	64(69.6)
아버지 연령	35세 이하	28(30.4)
	41세 이상	21(22.9)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24(26.1)
	31-35세	55(59.8)
	36세 이상	13(14.1)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7(7.6)
	고졸	38(41.3)
	대졸 이상	47(51.1)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13(14.1)
	고졸	46(50.0)
	대졸 이상	33(35.9)
어머니 직업유무	무	42(45.7)
	유	50(54.3)

## 2. 측정도구

## 1)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ASCT :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Cassidy(1988)의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선물', '미안해요', '화가 났어요', '밥 먹기 싫어요',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무서운 소리가 났어요' 이야기 등 여섯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들은 유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의 끝부분을 완성하게 한 후, 유아의 대답을 분석하여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가족에게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 가족관계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 갈등상황에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가족 외부로부터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가족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능력을 파악하게 된다. 검사도구는 그림카드로 제작되어 있으며, 각 주제마다 각각 네 장의 그림 카드를 유아에게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

&lt;표 3&gt; 애착 유형 분류의 예

주제	애착 유형	유아의 반응
'선물'	안정 애착	·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표현 · 선물이 값지고 예쁘다고 표현 · 어머니가 선물을 받고 아주 기뻐함
	불안정-회피 애착	· 어머니와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음 · 어머니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지 않음 · 유아가 고립감을 느낌
	불안정-혼돈 애착	· 유아가 적대감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표현 · 선물이 가치없다고 표현 · 어머니가 선물을 거부한다고 표현
'미안해요'	안정 애착	· 유아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시인 · 어머니가 유아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고 표현
	불안정-회피 애착	· 어머니가 유아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표현
	불안정-혼돈 애착	· 어머니의 폭력적인 행동이 언급됨
'화가 났어요'	안정 애착	· 유아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 ·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할 때 주저하지 않음
	불안정-회피 애착	·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음
	불안정-혼돈 애착	·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났다고 표현
'밥 먹기 싫어요'	안정 애착	· 어머니가 기꺼이 맛있는 반찬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표현
	불안정-회피 애착	·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언급되지 않음
	불안정-혼돈 애착	· 어머니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표현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안정 애착	· 어머니가 자전거 찾은 것을 도와 줌
	불안정-회피 애착	· 자전거 찾기를 포기함
	불안정-혼돈 애착	· 자전거를 잃어버려서 어머니가 자신을 때릴 것이라고 표현
'무서운 소리가 났어요'	안정 애착	· 부모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같이 있어줄 것이라고 표현
	불안정-회피 애착	· 아무도 자신의 방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함
	불안정-혼돈 애착	·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가 아닌 존재(인형, 유치원 선생님, ...)

검사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유아의 반응을 기록·분석하여 유아의 애착을 안정 애착, 불안정-회피 애착, 불안정-혼돈 애착으로 분류하였다. 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유아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기쁨을 느끼고,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불안정-회피 애착으로 분류된 유아는 어머니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며,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느낌도 갖지 않는다. 불안정-혼돈 애착으로 분류된 유아는 회피, 슬픔, 예민함, 적대감을 느끼지만 부모와의 근접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각 이 야기 주제에 따라 애착유형을 분류한 예는 <표 3>과 같다.

유아가 여섯 가지 주제 중 가장 여러 번 해당되는 애착유형을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으로 선택한다. 관찰자간 신뢰도는 .93이다.

2) 자아개념 척도

유아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Bentley와 Yeatts(1974)의 “나는 이렇게 느껴요(I feel.....Me feel)”라는 자아개념 그림 검사도구를 김효정(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정서적·사회적·신체적 측면의 4개의 자아개념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각 요인마다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사물, 사람 또는 활동으로 묘사하는 그림으로 되어 있으며, 유아가 그림을 보고 느끼는 정도를 ‘좋다’, ‘싫다’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좋다’에 반응하면 1점, ‘싫다’에 반응하면 0점을 배점한다. 각 하위요인별로 볼 때 최고점은 10점, 최저점은 0점이므로 하위요인의 점수범위는 0점~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2이고,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60, .59, .68, .64이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도구 내용에 대한 유아의 이해여부와 검사자 어휘 사용의 적절성, 유아가 집중할 수 있는 소요시간의 적절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연령별로 5명씩을 대상으로 2000년 8월 16일에 연구자가 개별면접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유아의 질문 이해도를 높이고 면접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유아의 대답을 유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어촉진을 적절히 사용하기로 했다. 2000년 8월 17일부터 2000년 9월 20일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유아 92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녹음하였으며, 관찰자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서 연구자 이외에 관찰자 1인이 면접에 참여하여 연구자와 관찰자가 동시에 유아의 반응을 평가하였다.

4.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유아의 연령에 따른 자아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III. 결과

1. 성별·연령에 따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의 일반적 경향

1) 성별에 따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의 일반적 경향  
 성별에 따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성별에 따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의 일반적 경향

애착유형	성 별		전체(%)
	남아(%)	여아(%)	
안정 애착	24(52.2)	24(52.2)	48(52.2)
불안정-회피 애착	9(19.6)	11(23.9)	20(21.7)
불안정-혼돈 애착	13(28.2)	11(23.9)	24(26.1)
전체	46(100.0)	46(100.0)	92(100.0)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유아의 경우 안정 애착이 52.2%, 불안정-회피 애착이 21.7%, 불안정-혼돈 애착이 26.1%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불안정-혼돈 애착, 불안정-회피 애착 순이었다.

남아의 경우 안정 애착이 52.2%, 불안정-회피 애착이 19.6%, 불안정-혼돈 애착이 28.2%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은 불안정-혼돈 애착, 불안정-회피 애착 순이었다. 여아의 경우 안정 애착이 52.2%, 불안정-회피 애착이 23.9%, 불안정-혼돈 애착이 23.9%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제일 많고, 불안정-회피 애착과 불안정-혼돈 애착을 형성한 유아의 수는 같았다.

2) 연령에 따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의 일반적 경향  
 연령에 따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연령에 따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의 일반적 경향

애착유형	연령			전체(%)
	3세(%)	4세(%)	5세(%)	
안정 애착	17(56.7)	16(50.0)	15(50.0)	48(52.2)
불안정-회피 애착	6(20.0)	7(21.9)	7(23.3)	20(21.7)
불안정-혼돈 애착	7(23.3)	9(28.1)	8(26.7)	24(26.1)
전체	30(100.0)	32(100.0)	30(100.0)	92(100.0)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세의 경우 안정 애착이 56.7%, 불안정-회피 애착이 20.0%, 불안정-혼돈 애착이 23.3%이다. 4세의 경우 안정 애착이 50.0%, 불안정-회피 애착이 21.9%, 불안정-혼돈 애착이 28.1%이다. 5세의 경우 안정 애착이 50.0%, 불안정-회피 애착이 23.3%, 불안정-혼돈 애착이 26.7%이다. 각 연령 모두 안정 애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불안정-혼돈 애착, 불안정-회피 애착 순이었다.

2. 성별·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1)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성별에 따른 유아의 총 자아개념과 자아개념 하위요인, 즉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자아개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총 자아개념 및 자아개념 하위요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6>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자아개념	성별(빈도)	M	SD	t-value
인지적 자아개념	남 (N=46)	7.74	1.39	-.855
	여 (N=46)	7.98	1.29	
정서적 자아개념	남 (N=46)	6.93	1.18	-1.950
	여 (N=46)	7.46	1.38	
사회적 자아개념	남 (N=46)	7.11	1.72	.821
	여 (N=46)	6.83	1.58	
신체적 자아개념	남 (N=46)	7.83	1.57	1.113
	여 (N=46)	7.48	1.43	
총 자아개념	남 (N=46)	29.61	4.92	-.131
	여 (N=46)	29.74	4.66	

2)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연령에 따른 유아의 총 자아개념 및 자아개념 하위요인, 즉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자아개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자아개념	연령	N	M	SD	Scheffe	F
인지적 자아개념	3세	30	8.73	1.39	a	11.77*
	4세	32	7.47	1.11	b	
	5세	30	7.40	1.10	b	
정서적 자아개념	3세	30	7.87	1.53	a	6.88*
	4세	32	6.97	1.18	b	
	5세	30	6.77	.90	b	
사회적 자아개념	3세	30	8.07	1.62	a	16.43*
	4세	32	6.88	1.29	b	
	5세	30	5.97	1.35	c	
신체적 자아개념	3세	30	8.53	1.41	a	10.29*
	4세	32	7.47	1.24	b	
	5세	30	6.97	1.45	b	
총 자아개념	3세	30	33.20	5.07	a	18.07*
	4세	32	28.78	3.70	b	
	5세	30	27.10	3.21	b	

\*p<.05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인지적 자아개념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77, p<.05).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세의 인지적 자아개념은 4세 및 5세의 인지적 자아개념과 차이가 있었다. 즉 3세 유아의 인지적 자아개념이 4세 및 5세의 인지적 자아개념보다 긍정적이었고, 4세와 5세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유아의 정서적 자아개념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88, p<.05).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세의 정서적 자아개념은 4세 및 5세의 정서적 자아개념과 차이가 있었다. 즉 3세 유아의 정서적 자아개념은 4세 및 5세의 정서적 자아개념보다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고, 4세와 5세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유아의 사회적 자아개념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6.43, p<.05).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세, 4세, 5세의 사회적 자아개념은 차이가 있었다. 즉 3세, 4세 그리고 5세 유아의 사회적 자아개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덜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유아의 신체적 자아개념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29, p<.05).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세의 신체적 자아개념은 4세 및 5세의 신체적 자아개념과 차이가 있었다. 즉 3세 유아의 신체적 자아개념은 4세 및 5세 유아의 신체적 자아개념보다 긍정적이었고, 4세와 5세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유아의 총 자아개념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8.07, p<.05$ ).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세의 총 자아개념은 4세 및 5세의 총 자아개념과 차이가 있었다. 즉 3세의 총 자아개념은 4세 및 5세의 총 자아개념보다 긍정적이었고, 4세와 5세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 3.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과 총 자아개념 및 자아개념 하위요인, 즉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자아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인지적 자아개념은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7.04, p<.05$ ).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 애착 유아의 인지적 자아개념은 불안정-회피 애착 및 불안정-혼돈 애착 유아의 인지적 자아개념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의 인지적 자아개념은 불안정-회피 애착 및 불안정-혼돈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적 자아개념은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8.30, p<.05$ ).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 애착 유아의 정서적 자아개념은 불안정-회피 애착 및 불안정-혼돈 애착 유아의 정서적 자아개념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와 불안정-회피 애착 및 불안정-혼돈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의 정서적 자아개념이 더 긍정적이었다.

유아의 사회적 자아개념은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3.15, p<.05$ ).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 애착 유아의 사회적 자아개념은 불안정-회피 애착 및 불안정-혼돈 애착 유아의 사회적 자아개념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와 불안정-회피 애착 및 불안정-혼돈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의 사회적 자아개념이 더 긍정적이었다.

유아의 신체적 자아개념은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2.83, p<.05$ ).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 애착 유아의 신체적 자아개념은 불안정-회피 애착 및 불안정-혼돈 애착 유아의 신체적 자아개념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불안정-회피 애착 및 불안정-혼돈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더 긍정적인 신체적 자아개념을 갖는다.

유아의 총 자아개념은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7.65, p<.05$ ).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 애착 유아의 총 자아개념은 불안정-회피 애착 및 불안정-혼돈 애착 유아의 총 자아개념과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불안정-회피 애착 및 불안정-혼돈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총 자아개념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본 연구는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를 사용하여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을 직접 측정하여 유아의 성별, 연령별 애착유형의 일반적 경향을 밝히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에 따라 유아의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성별·연령에 따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의 일반적 경향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안정 애착이 52.2%, 불안정-회피 애착이 21.7%, 불안정-혼돈 애착이 26.1%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불안정-혼돈 애착, 불안정-회피 애착 순이었다.

<표 8>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애착유형	인지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				총 자아개념			
	N	M	SD	Scheffe	N	M	SD	Scheffe	N	M	SD	Scheffe	N	M	SD	Scheffe	N	M	SD	Scheffe
안정 애착	48	8.63	1.06	a	48	7.96	1.01	a	48	7.88	1.39	a	48	8.48	1.11	a	48	32.94	3.56	a
불안정-회피 애착	20	6.75	0.97	b	20	6.15	0.81	b	20	6.20	1.32	b	20	6.90	1.07	b	20	26.00	2.25	b
불안정-혼돈 애착	24	7.25	1.15	b	24	6.54	1.22	b	24	5.79	1.28	b	24	6.63	1.56	b	24	26.21	3.65	b
F	27.04*				28.30*				23.15*				22.83*				47.65*			

\* $p<.05$

본 연구 결과는 애착유형에 관한 국내의 여러 연구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조복희(1997)의 연구에서는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51.9%이고,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48.1%이었다. 노명희와 이숙(1996)의 연구에서도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불안정-저항 애착, 불안정-혼돈 애착 순이었다. 홍계옥과 정옥분(1995)은 안정 애착 유형이 61.8%, 불안정-회피 유형이 25%, 나머지 유형이 약 11.2%로서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박응임(1995)의 연구에서는 안정 애착이 약 80%, 불안정-회피 유형이 약 17%, 나머지 유형이 3%인 것으로 나타났고, 김민정(1990)도 73.5%가 안정애착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송명자, 1999). 본 연구에서 밝혀진 안정 애착의 비율이 다른 연구에서보다 다소 낮은 하지만, 국내 연구의 대부분이 안정 애착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안정 애착이 52.2%, 불안정-회피 애착이 19.6%, 불안정-혼돈 애착이 28.2%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은 불안정-혼돈 애착, 불안정-회피 애착 순이었다. 여아의 경우 안정 애착이 52.2%, 불안정-회피 애착이 23.9%, 불안정-혼돈 애착이 23.9%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제일 많고, 불안정-회피 애착과 불안정-혼돈 애착을 형성한 유아의 수는 같았다.

연령에 따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3세의 경우 안정 애착이 56.7%, 불안정-회피 애착이 20.0%, 불안정-혼돈 애착이 23.3%이다. 4세의 경우 안정 애착이 50.0%, 불안정-회피 애착이 21.9%, 불안정-혼돈 애착이 28.1%이다. 5세의 경우 안정 애착이 50.0%, 불안정-회피 애착이 23.3%, 불안정-혼돈 애착이 26.7%이다. 각 연령 모두 안정 애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불안정-혼돈 애착, 불안정-회피 애착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에 관한 연구들(김승경, 1998; 나유미, 1997; 박응임, 1995; 박지희, 1996; Ainsworth, 1979; Beckwith, 1972; Bowlby, 1969; LaFreniere & Sroufe, 1985; Londerville & Main, 1981)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다. 이들은 영아기에 애착이 일단 형성되면 성인기까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된다고 보았으며, Main과 Cassidy(1988)도 애착의 지속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중단연구를 한 결과 애착이 지속성이 있음을 보고했다.

## 2. 성별 ·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성별에 따라 유아의 총 자아개념 및 자아개념 하위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자아개념에 있어서 성차가 없다는 Burge(1982), Piers와 Harris(1964), 김재봉(1986), 김종희(1980), 김효정(1991), 홍준표(1974)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남아의 자아개념이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주

리분, 1982; Burns & Zweig, 1980; Elrod & Crase, 1980; Hall & Halberstadt, 1980)와, 여아의 자아개념이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정숙자, 1984)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성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사회로부터 강요받고, 특히 남아들은 모든 발달영역에서 여아들보다 더 많이 성취하도록 기대되었기 때문에, 남아가 여아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는 연구들이 지금까지 유아 자아개념 연구에서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점차 남아와 여아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비슷해지고 있고, 부모들이 실제로 유아를 양육할 때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고 유아의 성취를 지지하기 때문에 유아의 자아개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압력 때문에 자신이 가진 소질과 적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간의 격차가 지나치게 심할 때는 자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유아의 총 자아개념 및 자아개념 하위요인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총 자아개념 및 자아개념 하위요인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세의 자아개념은 4세 및 5세와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자아개념은 더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김재봉(1986)과 주리분(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김재봉(1986)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은 3세에서 4세까지 계속되다가, 4세를 기점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리분(1982)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의 자아개념은 연령이 어릴수록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3세 유아들은 4세 및 5세 유아보다 또래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보다 주관적이고, 자신을 평가할 때, 판단의 정확성이 낮고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자신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작용하게 되므로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경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 3.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에 따라 유아의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애착 유형에 따라 유아의 총 자아개념 및 자아개념 하위요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불안정-회피 애착 및 불안정-혼돈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자아개념이 긍정적이었다. 이은숙(1998)의 연구에서, 부모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은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은 애착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은숙(1998)의 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따라서 수용적이고 언제나 반응적인 애착대상



인 어머니와 내적인 신뢰감을 통해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자신의 역량과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안정 애착 형성 유무는 유아 자아인식의 촉진에 영향을 미치고 타인에 대한 행동과 사회적, 비사회적 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감각을 발달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아개념 하위요인 각 영역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즉, 인지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 모두 안정 애착 집단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불안정-회피 애착, 불안정-혼돈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인지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이었다. 고경애(1984)의 연구를 살펴보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인지능력 면에서 더 뛰어나며, 성취동기가 더 높고 과제해결 상황에서도 문제에 더 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인지적 수행을 잘 하는 경험을 자주 함으로서 긍정적인 인지적 자아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은희(1998)는 애착대상에게 수용되어지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환경탐색이 이루어지며, 인지적인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불안정-회피 애착, 불안정-혼돈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정서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교사 및 어머니와 애착 안정도가 높은 유아는 교사나 어머니를 안정기제로 삼고 주변상황에 대한 탐색활동을 자유롭게 하며 정서적 행동문제를 덜 나타낸다는 김영명(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불안정-회피 애착, 불안정-혼돈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사회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이었다. 이는 유아의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자아개념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Pastor(1981)는 낯선 상황에서 안정된 애착을 보였던 영아는 불안정 애착을 보였던 영아보다 유아기 때 또래에 대해 더 반응적이며, 또래와 보다 적극적·호혜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인기가 있고 공감적이며(Sroufe, 1983),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으며(Waters et al., 1985), 대인적 응성이 더 바람직하게 나타났다(Park & Waters, 1989). 이렇듯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유능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사회적 자아개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불안정-회피 애착, 불안정-혼돈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신체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이었다. 이는 유아가 주위 환경에 대한 지각이 생기면서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될 때, 주위 성인 즉 부모 또는 교사, 또래들로부터 지지적인 반응을 받아 안정적으로 애

착을 형성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전은희(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Cassidy, 1988)를 사용하여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을 직접 측정하여 유아의 애착유형을 밝히고, 유아의 자아개념을 보다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림도구(Bentley & Yeatts, 1974)를 사용하여 유아의 총 자아개념과 자아개념 하위요인-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자아개념을 측정하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에 따라 유아의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왔다. 조사 대상은 대구시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세, 만 4세, 만 5세 유아 92명이었고, 사용된 측정도구는 애착 척도와 자아개념 척도였다. 유아-어머니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Cassidy(1988)의 애착 이야기 완성 검사(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를 사용하였고, 유아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Bentley와 Yeatts(1974)의 "나는 이렇게 느껴요(I feel.....Me feel)"라는 자아개념 그림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은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가장 많고, 불안정-회피 애착과 불안정-혼돈 애착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둘째, 유아의 자아개념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유아의 자아개념은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3세의 자아개념은 4세 및 5세의 자아개념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유아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 하위요인 즉, 인지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은 3세 집단이 4세 및 5세 집단과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자아개념은 각 연령 모두 차이를 보였고, 연령이 어릴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은 다른 하위요인과 같은 결과이다.

셋째, 유아의 애착 유형에 따라 유아의 자아개념에는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불안정-회피 애착 및 불안정-혼돈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총 자아개념 및 자아개념 하위영역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유아가 어머니와 애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므로 유아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애착 검사 도구는 특정 상황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토대로 유아의 애착 유형을 분류하였다. 검사에서 제시된 상황 이외에 유아의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유아의 언어적·인지적 제약을 극복하여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개념 검사도구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가 문항수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가 높은 자아개념 검사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 접수일 : 2001년 1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6월 10일

#### 【참 고 문 헌】

- 고경애(1984).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경(1998). 영아-어머니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명(1996). 어머니 및 보육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정서적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지(1994).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봉(1986). 3·4·5세 유아의 자아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순(1989). 영아의 애착, 자아개념 및 사물영속성 보존능력과 가정환경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중희(1980). 자기노출과 자아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희(199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 및 정서간의 상관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 및 인지 양식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권(1979). 자아개념 변화에 대한 유사중단적 연구. 행동과학연구소. 통권 112호.
- 김효정(1991).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유아의 공격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김경연(1993). 아동의 자아존중감 : 구성영역과 발달. 아동학회지, 14(1), 129-139.
- 나유미(1997).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영환(1998).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미·이영(2000).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아지각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99-107.
- 박은경(1993).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용임(1995). 영아-어머니간 애착유형과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주혜(1997). 아동이 지각한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희(1996). 영아와 교사간 애착 안정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혜숙(1998). 어머니와 교사의 복합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명자(1999).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지연(198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애착 및 물체영속성 개념발달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효순(1996). 애착의 안정도와 유아의 자아지각. 한국 심리학회지-발달, 제9권 1호, 110-119.
- 이은경(1993). 청소년기 모-자녀간의 애착이 자녀의 사회성과 학문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1998).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방식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최혜영·김미혜(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 유치원용 및 국민학교 1, 2학년용 척도.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제 4 권, 175-189.
- 이주리(1996). 유아의 모자간 애착과 역량지각. 대한가정관리학회지, 14(1), 177-185.
- 전은희(1998). 교사-유아간 애착과 유아의 자아지각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숙자(1984). 유아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순(199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애착이 대인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윤정(1997). 유아의 자아개념과 유아간 상호작용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리분(1982). 유아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영(1990). 사회적 능력성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준표(1974).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간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1979). Infant-mother attachment. *American Psychologist*, 34, 932-937.
- Ainsworth, M. D. (1983). Infant attachment and maternal care : Some implications for psychoanalytic concepts of development. *Dialogue*, 6, 41-49.
- Beckwith, L. (1972).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social behavior and their mothers' behavior. *Child Development*, 43, 397-411.
- Bentley, E. L. & Yeatts, P. P. (1974). *The Self-concept: Instructional objectives, curriculum sequence, and criterion referenced assessment*.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2578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NY: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87).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urge, P.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sex-role identity and self-concept of preschool children. *Child Study Journal*, 12(4), 249-257.
- Burns, W. J., & Zweig, A. R. (1980). Self-concept of chronically ill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7(2), 1979-1980.
- Cassidy(1988). *Attachment and the self at age six*.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Inc.
- Elrod, M. M., & Crase, S. J. (1980). Sex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parental behavior. *Psychological Reports*, 46, 719-727.
- Hall, J. A., & Halberstadt, A., G. (1980). Masculinity and feminity in children : development of the children's personal attributes questionair. *Developmental Psychology*, 16(4), 270-280.
- LaFreniere, P. J. & Sroufe, A. (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 Intercorrelations between measur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89-299.
- Londerville, S. & Main, M. (1981). Security of Attachment, Compliance, and Maternal Training Method in Second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89-299.
- Main, M. & Cassidy, J. (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parent at age six: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 and stable over a one-mother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15-426.
- Park, K. A., & Waters, E.(1989). Security of attachment and preschool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0, 1076-1281.
- Pastor, D. L.(1981). The Quality of mother-infant and its relationship to toddler's initial sociality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6-335.
- Piers, E. V., & Harris, D. (1964). Age and other correlates of self-concept in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5, 91-95.
- Purkey, W. W.(1970),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Sroufe, L. A. (1983). *Individual patterns of adaptation from infancy to preschool*. In M Perlmutter(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Vol.16, 41-85).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41-65.